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9:1-9

요절은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오늘 아침 빌립 브라운 목자님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울의 개인적인 만남을 묘사합니다. 사울의 만남은 그의 극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울 한 사람의 변화는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요, 세계구원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방문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대적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만남은 또한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냅니다. (똑똑) "마크, 마크, 왜 나를 박해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셔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울은 매우 교만한 지식인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해서, 사울은 새롭게 떠오르는 기독교를 뿌리뽑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고 있음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스테판의 순교 이후, 사울은 더욱 살육적이고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뿌리뽑기로 결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 지식인이요, 의로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는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마스쿠스의 회당으로 가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향하며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원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하늘에서 오는 빛이 매우 밝고 해보다 더 밝습니다(행 22:13). 이 하늘의 빛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취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열두 제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많은 양들을 방문하여 그들안에 있는 사망권세를 몰아내셨습니다.

게다가 부활한 예수님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울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빛을 본 사울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들려온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이까?” 묻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5)”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품어 주셨습니다.

죄악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벌레처럼 짓밟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저는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그와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도 유명한 다윗 왕조차 자신을 상처를 준 친아들 압살롬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살인자 같은 사울에게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울의 살인과 핍박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나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후 1: 15b)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고전 15: 10a).”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6)”

부활한 예수님은 사울을 영접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7-9절을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뻘이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인간적 교만과 미움과 독선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작은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듯이 저에게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했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으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교만은 저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저는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때 초월명상(TM)을 통해 IQ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Mantra(마법의 단어를 의미) 명상을 해도 IQ가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저는 인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둠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새로운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학업 실패를 통해 저를 낮추셨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을 발표할 수 없었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자매 목사님과 1:1 성경공부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소감을 쓸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이 저를 비추었고 제 모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 삶의 요절로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는 제 죄가 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생명과 희망을 찾습니다.

저는 의미 없는 명상 대신 이른 아침에 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정욕을 극복했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2003년에 박사 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저에게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 캠퍼스 방향하는 학생들을 섬기는 교수 목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국립 대만 대학(NTU)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홍콩에서 글로리아 선교사님을 아내로 데려오셨습니다. 저희는 대만의 모든 학생들에게 축복이 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빌려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주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갑작스러운 실직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미래의 안정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던 중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절을 통해 저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양들을 섬기기 위해 선교지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의 결정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Academia Sinica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 작은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선교에 동참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겸손한 인도 가족인 Guru와 Beula를 우리 사역에 데려오셨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New York UBF에 Guru를 보내셨고 그는 이번 수양회에서 성경공부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가오슝 UBF의 제니 자매님과 마르코스 목사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벨리즈 출신의 제니다와 인도 출신의 레이첼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세계 선교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염려로 가득한 우상숭배자에서 믿음과 비전의 선교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살짝 엿보고, 대만과 아시아 모든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캠퍼스 학생들에게 그 영광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